중국번역문학사 연구의 발전

– 하나의 학술사적 고찰 –

金素貞*

<목 차>

1. 들어가며
2. 1980년 이전의 연구 성과
   2.1 중국문학사가의 시각에 의지한 '번역문학사'
   2.2 '번역문학사'의 선구적 저술
3. 1980년 이후의 연구 성과
   3.1 비교문학연구자의 시각에 의지한 '번역문학사'
   3.2 번역학연구자의 시각에 의지한 '번역문학사'
4. 마무리를 대신하며: 향후의 전망

1. 들어가며

중국에서는 번역연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이 환기되어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학술계의 꾸준한 연구 누적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와 '번역학'(translation studies)[1]은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비준받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중국 대륙의 경우에는 1994년 중국비교문학학회 내에 번역연구회가 성립하였고, 2006년에는 번역학과가 정식 분과학문으

* 釜山大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중국에서는 'translation studies'의 번역어로 '翻譯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陳學斌/劉彤, <Translation Studies的名與實 — 再議"Translation Studies"一詞的漢譯>(≪南昌大學學報≫ 第36卷 第6期, 2005.11) 160쪽 참조.

www.kci.go.kr

로 인가받아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타이완과 홍콩에서도 대학 내의 번역학 센터를 중심으로 번역학 강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근래 괄목 할 만큼 발전한 중국번역학, 그 지류 중 하나인 번역문학사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궤적을 고찰해보려 한다.

중국번역학의 성장을 견인한 서양번역학에서도 번역사는 번역이론 및 번역방법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가 지난 1980년대 말에 와서야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연구의 출발이 늦은 번역사 연구는 1998년 핌(Pym)의 번역사 연구 방법에 관한 이론저작이 발표됨으로써[2] 이론적 틀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양 번역학계의 번역사 연구 진척과 병행하듯, 중국에서도 번역사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까지 27권에 달하는 단행본이 출판되었다.[3]

중국번역사는 번역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종교번역, 과학번역, 문학번역, 사회과학번역 등의 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외국문학의 번역사건에 관하여 통시적 고찰을 전개한 번역문학사 저작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지난 20세기 동안 중국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번역문학의 연구가 부단히 발전해온 과정을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사적 고찰은 기왕의 연구 성과와 경험이 현재 연구의 출발점이자 향후의 연구에 자성적 교훈을 던져준다는

2) Anthony Pym(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St. Jerome.

3) ①馬祖毅(1984(초판):1998(개정판)), ≪中國飜譯簡史 — "五四"以前部分≫, 中國對外飜譯出版公司; ②臧克倫(1991), ≪中國飜譯史話≫, 濟南山東教育出版社; ③譚載喜(1991), ≪西方飜譯簡史≫, 商務印書館; ④陳福康(1992), ≪中國譯學理論史稿≫, 上海外語教育出版社; ⑤黎難秋(1993), ≪中國科學文獻飜譯史稿≫, 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⑥熱紮克・買提尼亞孜(1994), ≪西域飜譯史≫, 新疆大學出版社; ⑦鄒振環(1996), ≪影響中國近代社會的一百種譯作≫, 中國對外飜譯出版公司; ⑧黎難秋(1996), ≪中國科學飜譯史料≫, 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⑨王克非(1997), ≪飜譯文化史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⑩馬祖毅/任榮珍(1997), ≪漢籍外譯史≫, 湖北教育出版社; ⑪王宏印(2003), ≪中國傳統譯論經典詮釋 — 從道安到傅雷≫, 湖北教育出版社 ; ⑫王秉欽(2004), ≪20世紀中國飜譯思想史≫, 南開大學出版社; ⑬方華文(2005), ≪20世紀中國飜譯史≫, 西北大學出版社 등이 있다. 그 외 번역문학사 관련 저서 14종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다.

2. 1980년 이전의 연구 성과

2.1 중국문학사가의 시각에 의지한 '번역문학사'

1980년 이전의 번역문학사 연구는 중국현대문학과 문화에 미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문학사 연구의 일부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민국시기에 출간되었던 몇몇 문학사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천즈잔(陳子展)의 ≪中國近代文學之變遷≫(上海中華書局, 1929), 왕저푸(王哲甫)의 ≪中國新文學運動史≫(北平傑成印書局, 1933), 아잉(阿英)의 ≪晚淸小說史≫(1935), 톈친(田禽)의 ≪中國戲劇運動≫(上海商務印書館, 1944) 등[4]이 번역문학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기술하였다.

천즈잔의 저작은 저자가 톈한(田漢)의 초빙을 받아 상하이(上海) 南國藝術學院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근대문학사 강의 교재로 쓰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1898년 무술변법에서 1928년까지 30년간을 '중국근대'로 설정하고 중국문학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기술한 책이다. 본서의 '8장 飜譯文學'에서는 1898년~1928년 동안 활동한 번역가의 업적에 대해 기술했는데, 서양사상 번역가 옌푸(嚴復), 서양소설 번역가 린수(林紓), 서양시 번역가 마쥔우(馬君武)와 쑤

4) 이외에도 주쯔칭(朱自淸)이 집필한 ≪中國新文學硏究綱要≫(1929)에서도 번역문학을 기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1장 배경'에서 린수, 토요일파(禮拜六派) 번역가 바오톈샤오, 저우슈짠(周瘦鵑)의 번역과 ≪歐美名家短篇小說叢刊≫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제3장 "외국의 영향"과 현재의 분야'에서는 미국(특히 싱클레어의 이론과 작품), 러시아, 일본, 북동유럽, 독일, 영미문학의 영향에 대해, '제5장 소설'에서도 저우쭈어런(周作人)의 번역 텍스트 ≪點滴≫(1920)에 관하여 직역문체, 인도주의 정신, 동북유럽과 약소민족의 작품, 문학에 대한 기대와 기탁 순으로 언급하였다. 본서는 1929년 칭화(淸華)대학에서 '中國新文學硏究' 강의 노트로 사용하기 위해 개요식으로 정리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만수(蘇曼殊) 등 4명의 번역가에 한해 개괄식으로 기술했다. 문학번역가가 아님에도 옌푸를 기술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가 漢代 이전의 고문을 번역문체로 채택하여 서양철학사상을 번역함으로써 청말 봉건지식인들의 시야를 확장했고 또 번역기준으로서 '信達雅'를 제기하여 이후의 번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중국번역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동일한 원저에 대한 2개 이상의 번역텍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저자는 번역텍스트간의 비교를 통해 훌륭한 번역을 가려내기도 했다. 가령 바이런의 시 ≪哀希臘≫[5]을 번역한 3종의 번역본 가운데 쑤만수의 오언고시체(五言古詩體) 번역본과 후스(胡適)의 이소체(離騷體) 번역본에 비해 마쥔우가 칠언고시(七言古詩)를 사용하여 웅장한 필치로 번역한 것이 훨씬 좋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시 번역의 경우 번역문체가 원서의 원의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한 결론이다. 번역텍스트와 원천텍스트간의 비교 대조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외국문학의 중역(中譯)과 동시에 중국고전시가의 영역(英譯)에도[6] 힘쓴 쑤만수(蘇曼殊)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가 번역한 바이런의 시 ≪去國行≫[7]을 영어 원문과 병기하여 영국시가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의미와 미감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왕저푸(王哲甫)의 저작 역시 1932년 山西省立教育學院에서 新文學 강의를 할 때 강의용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1933년 9월 北平傑成印書局에서 출판하였다. 본서는 신문학의 탄생기점을 1917년 후스(胡適)가 <文學改良趨議>을 발표한 이후로 설정하고 신문학의 발전사를 기술한 문학사이며 이후 ≪中國新文學大系(1917~1927)≫의 편찬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왕저푸는 '제7장 飜譯文學' 서두에서 중국 신문학이 15~6년 사이에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 작가들의 노력과 함께 외국문학의 영향 덕분이라고 번역문학의 가치를 인정했다. 신문학이 아직 유년기였을 때는 모범으로 삼을 만한 웅장하고 위대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작품의 번역은 신문학

www.kci.go.kr

5) *The Isles of Greece*
6) ≪文學因緣≫, ≪英漢三昧集≫ 등이 있다.
7) 원제는 *My Native Land—Good Night!*, ≪바이런시선(拜輪詩選)≫(1891)에 수록.

운동의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8] 신문학운동 이래 10여 년 간 활동했던 번역가와 번역그룹을 간단히 소개한 후 중요한 번역문학을 국가별로 정리해서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빛을 발한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포함),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 벨기에, 스페인, 고대그리스, 인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순서로 수록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번역된 러시아문학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뚜르게네프의 작품 번역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계문학의 조류는 이미 무산계급문학으로 넘어갔으며 중국문학도 이 조류를 따라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에 유입된 작품은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작품 외에는 그다지 기술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일축하였다.

청말소설 연구의 공백을 메워주는 기념비적 저서인 ≪晩淸小說史≫에서 저자 아잉(阿英)은 '제14장 번역소설'을 통해 청말 소설 가운데 번역소설은 ⅔를 차지하고 창작소설은 ⅓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되어 들어와 창작소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번역소설의 가치를 치켜세웠다. 아잉에 따르면 서양소설의 번역은 청대의 건륭년간으로 대략 1740년에 시작했는데, 시작단계에서는 성경고사와 서양소설의 내용에 첨삭을 가하는 번역방식이 선호되었다. 그 후로 번역된 최초의 장편소설은 월간 ≪瀛寰瑣記≫(申報館版)에 연재한[9] ≪昕夕閑談≫이다. 번역자 서명은 '여작거사(蠡勺居士)'로 표기되어 있으며 1900년에 이르러 다시쓰기를 통해 文寶書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서문 <重譯外國小說序>를 통해 외국소설을 번역하는 목적은 민주사상을 수입하여 중국의 정치체제를 변화시켜 부강의 길로 인도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실 대규모의 외국소설 번역은 청일전쟁(1895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소설계혁명이 고무적인 작용을 했음을 밝혔다. 소설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한 문장인 량치차오의 <譯印政治小說序>가 1898년 ≪淸

www.kci.go.kr

8) 王哲甫, ≪中國新文學運動史≫(北平傑成印書局, 1933) 259쪽 참조.
9) 1873년 1월 第3期에서 1875년 1월 第28期까지 총55회가 연재되었다.

議報≫에 게재되면서 소설은 정치와 사회개조의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본서는 청말에 활동했던 주요 번역가 중심으로 그들의 성과를 열거하고 공적을 평가하였다. 특히 청말 지식인 계층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번역가 엔푸와 린수의 번역성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엔푸는 비록 소설을 번역한 적은 없지만, ≪天演論≫의 서문에서 '信達雅' 번역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당시 소설번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중있게 다뤘다. 린수는 고문필법으로 외국소설을 번역한 최초의 번역가로 160여종에 달하는 번역문학을 출간했는데, 그 가운데 영국 작품이 99종으로 가장 많았고 민국 이전에 출판된 것은 50여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성과는 신해혁명(1911년) 이후에 나왔다. 린수 자신이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텍스트의 적절치 못한 선정과 오역 등의 결함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말 중국지식인들로 하여금 서양문학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고 일류작가를 알게 함으로써 중국문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린수가 번역했던 번역소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작품으로 ≪巴黎茶花女遺事(이하 巴黎)≫[10]와 ≪黑奴籲天錄≫[11]를 꼽았으며, 어빙(Washington Irving)의 The Sketch Book을 번역한 ≪拊掌錄≫의 일부를 발췌함으로써 린수 번역문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엔푸, 린수 외에 외국소설을 백화를 사용하여 장회소설 체제로 변형시킨 번역가 량치차오, 리보위안(李伯元), 우지엔런(吳趼人) 등은 소시민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편협한 시야에 갇혀 폄하함으로써 후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고 우타오(吳檮), 천렁쉐(陳冷血), 바오톈샤오(包天笑) 등의 번역성과도 소개하였으며, 저우수런(周樹人)과 저우쭈어런(周作人) 형제가 1909년 번역한 ≪域外小說集≫도 소개했다. ≪역외소설집≫이 문학적 이해도와 원문에 대한 충실성면에서 린수의 번역보다 훨씬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시장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100~200회로 된 장회체(章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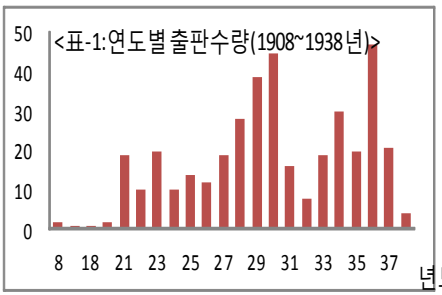
www.kci.go.kr

10) *La Traviata*
11) *Uncle Tom's Cabin*

體)에 익숙하던 청말의 독자들에게 단편소설의 체제는 너무나 낯설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둘째 ≪역외소설집≫이 번역문체로 사용한 고문은 린수의 번역문처럼 단숨에 써내려가는 기세를 갖추지 못한 채 난삽하기만 하였고, 또 고문을 사용하면서도 원작의 장절 체제는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당대의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에도 탁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외소설집≫에 수록되었던 폴란드 작가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의 ≪燈台守≫[12]의 일부를 발췌하여 린수의 번역문과 대비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상의 번역가의 성과와 함께 당대에 가장 많이 번역된 정치소설, 역사소설, 과학소설, 탐정소설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외국소설의 번역 상황을 장르별로 조망하기도 했다.

근대희극의 발전사를 정리한 톈친(田禽)의 ≪중국희극운동≫은 '제8장 30년 이래 희극번역의 비교(三十年來戲劇飜譯之比較)'를 통해 1908년부터 1938년까지 번역된 외국희극의 개황을 설명하고 상세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후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최초의 희극번역은 1908년 프랑스 유학파 리스쩡(李石曾)이 폴란드 작가 레오폴드 캄프(Leopold Kampf)의 *Le Grand soir*을 번역한 ≪夜未央≫에서 출발했으며 5.4운동 이후로 신문화 조류와 희극계의 노력에 힘입어 1938년까지 총 387종(改編, 改譯本 포함)이 번역 출판되었다고 했다. 연도별 출판수량, 출판사별 출판수량[13], 국가별 출판수량[14], 작가별 출판수량[15] 등을 각기 산출했는데, 그 가운데 희극번역의 연도별 출판수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번역가 중에서는 왕랴오이(王了一), 쟈오쥐인(焦菊隱), 겅지즈(耿濟之)가 가장 많은 작품을 번역했다고 밝힌 후, 30년 동안 번역된 희극작품을 목록화하여 첨부하

12) *Latarinik*
13) 商務印書館 142종, 中華書局 26종, 開明書店 19종.
14) 프랑스(132종), 영국(127), 일본(84), 소련·러시아(70), 미국(43), 독일(42), 그리스(18), 아일랜드(16), 벨기에(18), 인도(12), 노르웨이(13), 국적불명(11), 이탈리아(9), 유태(9), 스웨덴(8), 스페인(6), 오스트리아(5), 폴란드(3), 체코(1), 네델란드(1), 멕시코(1).
15) 세익스피어(20종), 버나드 쇼(12), 존 골즈워디(12), 체호프(14), 입센(9).



고 있는데 번역제목, 원작자, 번역가, 출판사(출판년도 미표시) 등을 명시하였다. 저자는 당시의 희극번역계에 만연했던 중복번역(複譯)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번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하기까지 했는데, 전극희극협회 내에 희극번역부를 신설하여 세계명저를 우선적으로 번역하되 가장 적합한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국시기 문학사가들은 시종일관 번역문학을 자국의 현대문학을 배태시킨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19세기 말 이래 민국시기까지 활동한 주요 번역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들 문학사가들의 선행연구는 후대의 번역문학 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한 연구시각과 방법은 후대의 번역문학사 집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원전과 번역문학의 관계, 번역가의 번역문체와 번역방식, 그리고 근대번역문단계가 안고 있던 병폐 등의 문제에 대해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번역문학을 창작문학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텍스트로 인정하는 상당한 인식 수준에 도달했지만, 본격적인 번역문학사 저술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민국시기 중국문학사 내에 서술된 번역문학을 통해 민국시기는 본격적인 번역연구를 준비하는 예비적 단계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번역문학이 중국문학사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시각은 일변하였다. 1949년부터 문화대혁명 종식에 이르는 근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번역문학은 문학사의 기술대상에서 배제되었다.[16] 번역문학이 중국문학과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문학사

16) 1960년 중화서국에서 출판한 ≪中國近代文學史稿≫(夏旦大學 중문과 1956학번 中國近代

가들이 일국적 시각에 갇혀 자국문학사 속에서 번역문학을 배제시켰던 서사 패턴은 문혁이 종결된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드물게나마 천핑위안(陳平原)의 ≪二十世紀中國小說史(1897~1916)≫에서 '제2장 역외소설의 자극과 깨우침'을 통해 청말민초시기 번역소설의 성과와 번역 특성을 고찰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문학사가들의 외면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이래 일부의 비교문학 연구자 지아즈팡(賈植芳), 셰톈전(謝天振) 등이 민국시기의 연구시야를 계승하여 번역문학을 중국현대문학발전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환원시킴으로써 번역문학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2 '번역문학사'의 선구적 저술

민국시기 유일한 번역문학사 관련 저술로 아잉의 ≪飜譯史話≫(1938)가 있는데 이는 신문 별쇄판에 연재하는 방식으로 출현했다고 한다.[17] 저자는 특이하게도 장회체 소설 형식을 취하여 청말민초시기 번역문학의 개황을 기술하였다. 청말민초시기 외국문학이 소개되고 번역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작가별로 기술하고 있는데, 번역가에 따라 나타나는 번역본의 특성과 차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제1회에서는 푸시킨과 고리키 작품의 번역 상황, 제2회에서는 레르몬도프와 톨스토이, 제3회에서는 허무당소설[18]과 탐정소설, 그리고 체호프 작품, 제4회에서는 셰익스피어와 해거드 작품의 번역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주요 번역가 천렁쉐, 우타오, 러즈(熱質), 저우씨(周氏) 형제, 린수, 바오톈샤오 등의 번역성과와 번역문체를 함께 기술했다. 본서는 사료의 면밀한 수집과 시각의 예리함 등이

文學史 편찬팀)는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19년 오사운동까지 기술한 중국문학사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린수의 번역소설을 기술한 바 있다.

17) ≪晩淸戲曲小說目≫의 敍記에서 아잉은 "飜譯小說史話, 曾在新聞紙副刊發表, 全稿未完."이라고 밝혔다.

18) 아잉은 본서에서 러시아 民意黨 활동을 반영한 작품 속에 나타나는 문학형상을 '虛無美人'이라고 칭했다.

www.kci.go.kr

빛을 발하지만, 애석하게도 집필 중간에 중단되어 20세기 전반기의 번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다.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셰톈전 교수는 본서를 명확한 번역문학의식을 가진 최초의 중국번역문학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19] 그에 따르면 번역문학의식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었는데 첫째, 오로지 번역문학만을 대상으로 그것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외국문학의 수입, 전파, 변형 등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추적한 점이다. 둘째, 단순히 외국문학의 번역사건을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 외국작가와 원천텍스트까지 서술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특히 동일한 원천텍스트에 대한 2종 이상의 번역텍스트(일례로 레르몬토프의 ≪우리시대의 영웅≫을 1907년 우타오가 번역한 ≪銀鈕碑≫와 1930년 양훼이(楊晦)가 번역한 ≪當代英雄≫) 간의 비교연구, 푸시킨과 레르몬도프가 중국에 번역되었을 때 소설가로서 획득하는 이미지와 본국에서의 시인으로서의 이미지 사이의 간극에 관한 분석 등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번역문학의 양대 주체 가운데 한 축인 번역가(다른 한 축은 작가)의 작용에 주목하여 우타오, 천렁쉐, 린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점이다.

3. 1980년 이후의 연구 성과

선구적 의미를 갖는 아잉의 ≪번역사화≫가 1938년 나온 이래로 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번역문학사는 집필되지 않다가 1960년에 이르러 ≪中國飜譯文學簡史: 初稿≫(이하 ≪簡史≫)[20]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베이징대학 내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었을 뿐 정식으로 외부에서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문학사 연구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못했다.[21] 본격적인 학술저작의 형식으로 번

www.kci.go.kr

19) 謝天振(1999), ≪譯介學≫,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60쪽 참조.
20) 北京大學西語系法文專業57級全體同學 編
21) ≪簡史≫는 번역문학이 중국문학에 미친 영향과 중국 독자에게 수용된 상황을 자세히 기

역문학사가 출판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의 일이다. 이는 아마도 개혁개방이래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면서 번역문학 사업이 크게 발전한 당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1980년 이래의 번역문학 연구는 비교문학과 번역학 영역에서 추진되었다. 개별 학문의 특성에 따라 연구시각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를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1 비교문학연구자의 시각에 의지한 '번역문학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번역문학사 저작은 1980년 이래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소수의 번역가 출신 연구자를 빼면 대부분 비교문학영역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번역문학 연구를 추진한 비교문학 연구자들의 배경은 동일하지 않았다. 중국문학에서 출발하는 연구자들은 민국시기 문학사가들이 취했던 관점, 즉 번역된 외국문학 텍스트가 중국현대문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었던 연구시각을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진보하였다.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심화시켰음은 물론, 가장 큰 발전은 번역문학을 중국문학의 일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번역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확립을 통해 가능했는데, 그들은 번역문학을 언어부호의 단순한 전환을 통해 만들어진 원전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던 차원을 넘어 다른 문화와 언어구조 속으로 들어오면서 번역자의 사상과 언어습관 등을 통해 표현된 새로운 문학 장르임을 분명히 했다. 외국문학에서 출발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서양 번역이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번역문학 연구에 그것을 원용

술했는데 중국에서 번역문학의 시작은 漢唐代에 번역된 불경으로 볼 수 있지만 외국문학의 본격적인 소개와 번역은 무술정변 직전 즉 량치차오가 〈譯印政治小說序〉를 발표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1898년에서 1958년까지의 번역문학사를 기술함에 있어 5단계 ㉠ 1898~1919 ㉡1919~1927 ㉢1927~1937 ㉣1937~1949.9 ㉤1949.10~1958.7로 나누었다. 15명의 번역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번역목적, 번역관점, 변역성과 및 한계 등을 기술하였고, 번역문학사가 포괄해야하는 요소들 즉 원작가와 번역가, 외국문학의 번역 사건뿐만 아니라 번역문학이 중국문학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모두 초보적인 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謝天振, 앞의 책 263~270쪽 참조.

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스라엘의 번역학자 투리(Gidion Toury)의 기술론적 번역연구, 미국의 번역학자 르페브르(Andre Lefevere)가 주도한 문화지향적 번역연구 등은 중국번역문학사 서사에 새로운 시야를 터주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 베이징사범대학 왕샹위안(王向遠) 교수의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22] 본고에서는 1980년 이래 출판된 중국번역문학사 저작을 종합형, 시대형, 국가/어종(語種)형 번역문학사로 분류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먼저, 종합형 번역문학사에 해당하는 저작으로 천위강(陳玉剛)이 주편(主編)한 ≪中國飜譯文學史稿(1840~1966)(이하 '史稿')≫(中國對外飜譯出版公司, 1989)[23], 뤄솬민(羅選民)이 주편한 ≪外國文學飜譯在中國≫(安徽文藝出版社, 2003), 멍자오이(孟昭毅)와 리자이다오(李載道)가 주편한 ≪中國飜譯文學史≫(北京大學出版社, 2005.7), 차밍젠(查明建)과 셰톈전이 주편한 ≪中國20世紀外國文學飜譯史≫(湖北敎育出版社, 2007), 양이(楊義)가 주편한 ≪二十世紀中國飜譯文學史≫ 6卷(百花文藝出版社, 2009) 등이 있다. 이들은 방대한 기간을 섭렵해야 하는 난이도 때문에 대부분 공동 집필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천위강의 ≪史稿≫는 번역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서가 없던 상황에서 탄생한 최초의 성과로 번역문학의 연구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기념비적 저작이다. 저명한 번역가 천위강(陳玉剛)이 총편집을 맡고 리자이다오(李載道)와 류셴뱌오(劉獻彪)가 부편집을 맡은 본서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 이전까지의 번역문학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1960년의 ≪簡史≫와 마찬가지로 ㉠청말시기 ㉡오사~1930년 ㉢좌련시기(1930년 좌련 성립~1937년 항전 개시) ㉣항일전쟁(1937~1949년) ㉤신중국 성립~문화대혁명 전야(1949~1966년) 등 5시기로 나누어 기술했다. 100여명에 달하는 번역가의 생애, 번역활동, 번역사상 등을 중요도에 따라 편폭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는데 ≪簡史≫에 비해 객관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으며 또 번역그룹 문학

22) 王向遠(2001), ≪二十世紀中國的日本飜譯文學史≫ 前言 7쪽 참조.
23) 본서는 조성환(2005)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중국번역문학사≫(중문출판사)로 출간되었다.

www.kci.go.kr

연구회, 창조사, 미명사 등의 번역활동과 번역논쟁 등도 소개하였다. ≪史稿≫의 집필진은 10여년 이후 톈진(天津)사범대학 멍자오이(孟昭毅) 교수 팀과 손잡고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中國飜譯文學史≫였다.[24] 1897년~2003년까지 지난 100여 년간 번역된 외국문학을 4시기 ㉠1897~1920 ㉡1921~1950 ㉢1951~1978 ㉣1979~2003로 나누어 중요 번역가 및 번역그룹을 중심으로 번역문학의 발전역사와 규율 그리고 의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史稿≫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성과는 서술시기를 2003년까지 확대하여 신시기 동안 출간된 동서양 각국 언어에 대한 번역문학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했으며, 타이완과 홍콩의 번역문학도 서술대상에 포함시켰고 또 부록으로 '中國飜譯文學史大事記(1862~2003)'를 첨부한 점이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저작이자 현재까지 출간된 중국번역문학사 가운데 가장 방대한 편폭을 자랑하는 대작은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소장 양이(楊義)가 주편을 맡아 백화문예(百花文藝)출판사에서 출간한 ≪二十世紀中國飜譯文學史≫이다. 이는 중국현대문학 및 비교문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 6명이 팀을 꾸려 추진한 '국가중점도서출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총 6권 ㉠근대 ㉡5·4시기 ㉢3·40년대 러시아·소련문학 ㉣30·40년대 영국·프랑스·미국문학 ㉤17년 및 문화대혁명 ㉥신시기 등으로 나뉘어져 각 권마다 저자를 달리 하고 있다.[25] 서양의 번역이론을 흡수하여 번역과 관련된 문학사조, 이데올로기, 후원인 등의 문제를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外國文學飜譯在中國≫는 칭화대학 '번역과 학제간 연구 센터(飜譯與跨學科研究中心)' 센터장 뤄솬민(羅選民) 교수가 총편집을 맡고 톈더베이(田德蓓), 종난(中南)대학 장쉬(張旭)가 부편집을 맡아 '문학과 번역연구총서'로 출간한 저작이다. 20세기 동안 중국에서 번역된 번역문학을 국가별로 조망함으로써 시대순으로 서술된 번역문학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즉 세계 문호들 가운데 어떤 작품이 중국에 번역 소개되었고 또 국가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

24) 모두 18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는데 구체적인 작업 분담은 본서의 '편집후기(編後記)' 참조.
25) 본서에 관한 자세한 서평은 김소정(2011), <중국문학사의 새로운 지평: ≪20세기중국번역문학사≫ 출간> (≪中國小說研究會報≫ 83) 참조.

www.kci.go.kr

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소련, 기타국가(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의 문학이 번역된 상황을 장르별(시, 소설, 희곡, 산문 등)로 개괄하였으며, 마지막 장인 6장에서 번역문학이 중국신문학 탄생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했는데, 첫째는 서양현대희극이 중국에 미친 영향과 중국에서의 수용, 둘째는 후스의 시 번역과 창작, 셋째는 무단(穆旦)[26]의 시 번역과 창작, 넷째는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작품의 번역과 수용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상하이외국어(上海外國語)대학 차밍젠(查明建) 교수와 세톈전 교수가 함께 집필한 ≪中國20世紀外國文學飜譯史≫ 역시 국가별 번역 상황을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실 이 저술은 2004년에 출간한 ≪中國現代飜譯文學史(1898~1949)≫(上海外語教育出版社)를 확대 보충한 것으로 20세기 중국번역문학사를 上編(1898~1949), 中編(1949~1976), 下編(1977~2000) 세 시기로 나누어 기술했다.

둘째, 시대형 번역문학사에 해당하는 저작으로 궈옌리(郭延禮)의 ≪中國近代飜譯文學概論≫(湖北教育出版社, 1998), 세톈전과 차밍젠(查明建)이 주편한 ≪中國現代飜譯文學史(1898~1949)≫(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4), 런수쿤(任淑坤)의 ≪五四時期外國文學飜譯研究≫(人民, 2009) 등이 있다. 산동(山東)대학 궈옌리 교수는 중국근대의 번역문학에 한해 기술했는데 그는 근대의 번역문학은 크게 3단계 ㉠맹아기(1870~1894) ㉡발전기(1895~1906) ㉢번성기(1907~1919)를 거쳐 발전했다고 보았다. 저자는 1871년 왕다오(王韜)와 장즈쉔(張芝軒)이 공역하여 ≪普法戰紀≫에 삽입한 프랑스 애국가 ≪馬賽曲≫[27]와 독일 애국가를 번역문학의 효시로 보았다. 저자는 ≪中國近代文學發展史≫3권(山東教育出版社, 1991)를 편찬했던 중국근대문학 연구자였던 만큼 결론의 지면을 빌어 근대번역문학과 중국문학의 근대화에 관해 특별히 논평을 가했다. 중국문학에서 출발한 저자의 학술적 배경으로 인해 본서는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번역문학을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저자

www.kci.go.kr

26) 시인이자 시 번역가로 유명했던 查良錚의 필명.
27) *La Marseillaise*

는 원천텍스트의 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번역텍스트를 선별하는 경향으로 흘렀고 서양의 번역이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근대중국의 번역문학이 갖는 특성과 규범 등에 관해 깊이 있는 학술적 견해를 피력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中國現代飜譯文學史(1898~1949)≫는 '국가사회과학기금'의 찬조를 받아 7명의 학자 셰톈전, 차밍젠, 전젠화(陳建華), 야오쥔웨이(姚君偉), 쉬광화(許光華), 웨이마오핑(衛茂平), 쑹빙훼이(宋炳輝) 등이 공동 집필하였다. 1840년~1949년까지를 '중국현대'로 규정하고 상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편(上編)은 주요 번역가와 번역그룹의 번역활동을 시대 순으로 기술했고, 하편(下編)은 국가별 번역상황 즉 러시아소련문학, 영미문학, 프랑스문학, 독일문학, 동남북유럽문학, 아시아국가문학의 번역상황을 기술했다. 풍부한 사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이상의 근대, 현대 시기의 번역문학사 외에, 연구의 시간 단위를 더 작게 잡아 오사시기에만 집중하여 쓴 ≪五四時期外國文學飜譯研究≫도 있다. 본서는 중국의 근대적 전환점인 오사시기에 나타난 번역문학에 집중하여 이 시기의 번역문학의 특징을 분석한 저작으로, 주요 번역그룹 신청년사, 문학연구회, 창조사, 미명사 등을 중심으로 번역성과를 서술하고 청말시기 번역문학에 비해 무엇이 진보했는지 추적함으로써 오사시기 번역문학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가/어종형 번역문학사에 해당하는 저작으로 쑨즈리(孫致禮)의 ≪1949~1966: 我國英美文學飜譯概論≫(譯林出版社, 1996), 왕샹위안(王向遠)의 ≪二十世紀中國的日本飜譯文學史≫(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왕젠카이(王建開)/루구쑨(陸穀孫)의 ≪五四以來我國英美文學作品譯介史(1919~1949)≫(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3) 등이 있다. 해방군외국어대학(解放軍外語學院) 쑨즈리 교수의 저작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17년간 중국에 번역된 영미문학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17년간의 영미문학 번역출판 개황, 제2장은 17년간 활동했던 영미문학 번역가, 제3장은 17년간의 경험과 계시이다. 영미문학 번역가로서도 유명한 저자는 건국 초기 17년간 총 460여종 번역된 영미문학 사료를 모두 섭렵함으로써 본서의 가치를 높였

www.kci.go.kr

다. 다음으로 베이징사범대학 왕샹위안 교수의 ≪二十世紀中國的日本飜譯文學史≫는 지난 20세기 100년동안 중국에서 번역된 일본문학에 대해 5시기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고찰한 저작이다. ㉠청말민초(1898~1919) ㉡2·30년대(1920~1936) ㉢전쟁시기(1937~1949) ㉣건국초기 30년(1949~1978) ㉤개혁개방이후(1979~2000)로 각 장을 배치하여 시기별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번역사건에 대해서는 일본문학유파 별로 번역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부록으로 타이완과 홍콩에서 번역된 일본문학을 개괄한 문장을 첨부함으로써 중화권에서 일본문학이 번역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번역문학사이다. 마지막으로, 복단(復旦)대학 번역과 왕젠카이 교수와 동 대학의 외국언어문학대학(外國語言文學學院) 학장 루구쑨 교수가 편찬한 ≪五四以來我國英美文學作品譯介史(1919~1949)≫는 1919년~1949년간 중국에서 번역된 영미문학을 소개한 학술저작이다. 돋보이는 특징은 종래의 번역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시대순 기술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장에서 영미문학 번역연구의 연혁을 기술한 뒤, 2장에서 5.4 초기에 일어난 번역논쟁을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번역의 태도와 원인, 4장에서는 ≪現代文藝季刊≫이 번역에 끼친 추진 작용, 5장에서는 수용배경과 선택방식, 6장에서는 영미문학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선별, 7장에서는 영미문학 번역에 나타나는 실용적 경향을 컨텍스트적 요소와 관련시켜 기술하였다.

비교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집필된 이상의 번역문학사는 대부분 시대 순으로 번역가, 번역사건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번역연구에 토대가 되는 사료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민국시기 문학사가들의 선행연구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몇 가지를 간과하였다. 번역텍스트와 원천텍스트 간의 비교 대조 작업을 통해서 번역이 낳은 변이에 대한 연구, 번역문단에서 속출한 병폐에 대한 자성적 성찰 등의 우수한 연구방법은 이들에 의해 확장되지 못했다. 그들은 번역의 실천적 측면에 해당하는 번역가의 문제를 기술하는데 치중하여[28], 번역자의 생애와 번역활동 및

28) 이는 그동안의 서구의 번역사 저술이 대부분 번역이론사에 치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www.kci.go.kr

성과를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일부 저작에서는 번역사상에 대한 언급을 겸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론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번역책략, 번역의도, 번역문학의 중국적 수용 양상과 영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해 있으며 특정 번역문학이 왜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도 저자는 자신만의 독창적 해석을 가하지 못했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저작이 기존의 연구 성과에 지나치게 의지함으로써 독특하고도 참신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새로운 연구시각은 번역사 서사를 전환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 새로운 연구시각 방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국 중심의 연구 시야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일례로 번역텍스트의 인접 국가로의 전파 현상이나 중서문화소통의 교량 역할을 했던 서양인의 번역활동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자국 중심의 시야에 갇힌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일본, 한국, 북한,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 중문번역텍스트가 전파되고 다시 각국의 언어로 재번역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번역텍스트가 중국문학 및 중국문화에 일으킨 작용에 관한 연구만이 지루하게 반복되었을 뿐이다. 한자문화권 내에서 중문번역텍스트가 다시 개별 국가의 언어로 재번역되는 양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이에 대해 추적함으로써 중문번역텍스트의 번역규범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번역문학사의 시대구분 문제에 있어서도 일치된 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번역문학사의 출발시점을 1840년으로 잡는 저작(陳玉剛; 1989, 楊義; 2009)이 있는가 하면 1897년으로 잡는 저작(孟昭毅; 2005)도 있었고[29], 번역문학의 근대/현대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도 1917년으로 보는 시각(賈植芳; 1993[30]), 1919년으

Anthony Pym, 앞의 책 10~11쪽 참조.

29) 王友貴는 20세기 중국번역문학사를 5분하면서 1864년 미국 롱 펠로우(Long Fellow)의 시 ≪人生頌(A Psalm of Life)≫의 번역을 출발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王友貴, <意識形態與20世紀中國飜譯文學史(1899~1979)>(≪中國飜譯≫ 24:5, 2003.9) 12쪽 참조.

30) 지아즈팡(賈植芳)이 주편한 ≪中國現代文學總書目≫(福建教育出版社, 1993)는 자칭 목록형식으로 쓴 중국현대문학사로서, 1917~1949년간 단행본으로 출판된 번역문학에 한해 시, 산문, 소설, 희곡 4장르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1882~1916년간 번역된

www.kci.go.kr

로 보는 시각(郭延禮;1998)과 1898년으로 보는 시각(謝天振;2004, 王向遠;2001)으로 삼분되었다.

3.2 번역학연구자의 시각에 의지한 '번역문학사'

번역학 연구자들은 기존 번역문학사의 주류적 서사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그것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번역사 서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번역문학사만 단독으로 연구하던 비교문학 연구자들의 서사에서 탈피하여 그것을 거대한 중국번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번역, 과학기술번역, 사회과학번역 등과의 연관선 상에서 고찰하였다. 홍콩중문대학 번역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콩훼이이(孔慧怡) 교수는 중국의 번역전통에서 보자면 외국문학의 번역은 지난 20세기 초에야 겨우 시작되어 고작 10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반면 종교번역과 과학기술번역은 몇 세기에 걸친 유구한 번역전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문화의 발전에 번역문학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번역문학을 거대한 중국번역사 속에 위치시켜야 놓고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 쓰는 번역사는 번역활동과 중국문화 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31] 중국에서 발생한 두 번의 번역운동 즉 불경번역과 서학(西學)번역 가운데 외국문학의 번역은 16세기에서 지금에까지 이어지는 서양의 물질문화 번역에 집중한 서학번역기에 속하기 때문에 번역의 궁극적 목표는 중화민족의 개혁과 자강이었다. 외국문학의 번역에 부과된 중국의 역사적 요구를 분명히 한 후 구체적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그것은 ≪飜譯・文學・文化≫(北京大學出版社, 1999)로 출간되었는데, 이는 북경대학출판사에서 기획한 '번역연구논총' 3권[32] 시리즈 중의 하

문학목록도 첨부하고 있다. 본서의 서문에서 지아즈팡은 중국현대문학에서 창작과 번역을 수레의 두 바퀴이자 새의 두 날개라고 비유한 전인(前人)의 말에 동의하면서 번역문학은 중국현대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원임을 강조하였다.

31) 孔慧怡(2002), <重寫飜譯史>, ≪二十一世紀≫ 網絡版4.

www.kci.go.kr

나로 번역문학 연구를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간의 직접 대조를 통해 문화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중국번역사 전체에 관한 저자의 인식이 본서에도 투영되어 서양문학의 번역문제와 더불어 불경번역, 나아가 중국문학의 영역(英譯)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본서에 수록된 서양문학의 번역 관련 문장으로는 2장에서 1896~1916년간 중국에 번역된 셜록홈즈 시리즈가 교화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중국적 맥락을 논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청말 번역소설에서 중국적으로 재창조된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9장에서는 중국현대소설에 등장하는 인명과 칭호의 영역 문제를 논하였다.

또 같은 대학 번역과 교수이자 현재 번역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왕홍즈(王宏志) 교수의 저작 ≪重釋"信達雅": 二十世紀中國飜譯研究≫(東方出版中心, 1999초판; 2007재판)도 번역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본서는 번역문학 자체의 성과만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번역문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번역논쟁, 청말민국시기의 중요한 번역이론, 청말시기의 번역규범에 대해 특정 주제별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빛난다. 1장에서는 엔푸의 번역이론 '신(信), 달(達), 아(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2장에서는 량치차오의 일본 정치소설 번역과 창작 활동에 대해 기술했으며, 3장에서는 폭력적 행위의 일례로 청말 외국소설의 번역 현상을 고찰하였고, 4장에서는 루쉰이 청말에 번역했던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문체특징을 당대에 유행했던 의역(意譯) 방식과 연관지어 고찰하였으며, 5장에서는 루쉰의 '딱딱한 번역(硬譯)' 이론에 대해 탐색하였고, 6장에서는 1929년 루쉰과 량스츄(梁實秋)의 번역논쟁을 당시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관련시켜 분석하였으며, 7장에서는 취치우바이(瞿秋白)의 번역이론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왕홍즈가 최근에 편찬한 ≪飜譯史研究2011≫(復旦大學, 2011)은 과거에 파편처럼 흩어져있던 종교번역, 과학기술번역, 문학번역 등의 연구를 한데 모아 거대한 하나의 중국번역사를 그려내기 위한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사실 본서는 홍콩 중문대학 번역연

www.kci.go.kr

32) '번역연구논총'의 나머지 2권은 王宏志 編, ≪飜譯與創作 — 中國近代飜譯小說論≫(2000), 孔慧怡/李承淑 編, ≪亞洲飜譯傳統現代動向≫(2000)이다.

구센터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간행된 학술 간행물로 제2집, 제3집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작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다.[33] 이 저작에서 번역문학은 전체 중국번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종교번역, 과학기술번역 등과 함께 중국문화의 발전에 번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4. 마무리를 대신하며: 향후의 전망

2000년대 이후로 중화권 번역연구자들이 중국번역학(Chinese translation studies)을 영국번역학, 프랑스번역학, 러시아번역학 등과 대등한 자격으로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의 한 지류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1980년 이래로 급성장한 서양의 번역이론 성과에 기대어 그들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많은 연구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번역문학의 연구는 획기적으로 진전하였고 기존 번역문학사 서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경향을 일별함으로써 향후의 번역문학사가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번역문학'의 범주에 있어 유명작가의 명저번역, 유명번역가의 번역과 더불어, 출발언어문화에서는 결코 주목받지 못했으나 목표언어문화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번역까지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번역을 재번역한 번안, 개역 등도 포함한다.[34] 현재의 시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배재할[35] 것이 아니라 당대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인기몰이를 했던 번역텍스트인 경우 문학적 가치의 여하에 상관없이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번역텍스트 자체의 문학성 여부를 넘어 번역이 가진 문화적 역량, 목표언어문화가 번역

www.kci.go.kr

33) ≪飜譯史硏究2012≫ 第2輯은 이미 작년 10월 출간되었다.
34) 謝天振, 앞의 책 268쪽.
35) 궈옌리(1998), 앞의 책.

에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하는지에 더욱 주목한 결과이다.

둘째,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던 원천텍스트 대한 철저한 고증 작업을 요구한다. 특히 청말민초시기 번역의 경우, 원천텍스트를 직접 저본으로 삼지 않고 영역본 혹은 일역본에 근거하여 간접 번역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사실 당시의 번역가들은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저본을 밝히는 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본을 명확히 고증해냄으로서 간접번역일 경우 중개 외국어가 일으키는 작용, 즉 간접번역으로 인한 이차변형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가령, 일역본을 통한 ≪이솝우화≫, 고리키, 톨스토이, 바이런, 타고르 작품의 번역이라든가 영역본을 통한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작품의 번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번역사 연구는 번역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한 변화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금지된 변화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핌의 주장[36]에 동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번역정책 등에 대한 고찰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번역문학에 대한 금서 조치[37], 출판물 검열 시스템을 통해 번역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와 번역자가 이루는 긴장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넷째, 번역의도, 번역책략, 번역문학이 일으킨 반향, 후원자 등에 대한 연구이다. 번역의도와 번역책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종 동일한 원천텍스트에 대한 2개 이상의 목표텍스트를 비교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번역문학이 일으킨 반향을 고찰할 때에는 번역가가 쓴 서문, 출판수량, 재판(再版)여부 등을 참고로 하는데 출판수량의 조사에 있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신문잡지매체에 연재했던 번역문학이다. 청말민초시기 번역문학의 독특한 전파방식으로 신문잡지매체에 연재하는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번역문

36) Anthony Pym, 앞의 책 5쪽.

37) *Alice in Wonderland*(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중국어 번역 ≪愛麗思漫遊奇境記≫는 1931년 호남성에서 금지 당했으며, 미국 싱클레어의 ≪石炭王≫와 ≪屠場≫은 1934년 금지당했다. 王建開, <飜譯史研究的史料拓展: 意義與方法>(≪上海飜譯≫ 2007第2期) 57쪽 참조.

학을 연재한 신문잡지매체에 한해 그것의 발행부수와 유포지역 등에 관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학의 화용론에 의지하여 대응하는 문구의 맥락적 의미와 대응하는 단어 간의 전환과정에 주목해서 번역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변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주류적 번역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번역가와 번역그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테면 청 말기에 와서 포교활동을 했던 서양인 선교사, 청말민국시기에 활동했던 여성번역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중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힘쓴 중국인 번역가 등에 관한 연구이다. 그리고 개별 번역가의 연구에 치중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번역그룹을 하나의 연구단위로 삼아 동일한 사상적 지향점을 가진 학술문화단체가 조직한 번역그룹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상무인서관편역국, 남사(南社) , 학형파(學衡派) 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번역문학 연구자들이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일구어가고 있는 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중국번역학을 정립하여 세계 다른 언어공동체의 번역학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 參考文獻 >

陳子展(1929), ≪中國近代文學之變遷≫, 上海: 中華書局.
王哲甫(1933), ≪中國新文學運動史≫, 北平傑成印書局.
田禽(1944), ≪中國戲劇運動≫, 上海: 商務印書館.
阿英(2003), ≪阿英全集≫5, 安輝敎育出版社.
陳玉剛(1989), ≪中國飜譯文學史稿(1840~1966)≫, 中國對外飜譯出版公司.
羅選民(2003), ≪外國文學飜譯在中國≫, 安徽文藝出版社.
查明建/謝天振(2007), ≪中國20世紀外國文學飜譯史≫, 湖北敎育出版社.
方華文(2005), ≪20世紀中國飜譯史≫, 西北大學出版社.

www.kci.go.kr

孟昭毅/李載道(2005), ≪中國飜譯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
楊義(2009), ≪二十世紀中國飜譯文學史≫ 6卷, 百花文藝出版社.
謝天振/查明建(2004), ≪中國現代飜譯文學史(1898~1949)≫, 上海外語教育出版社.
郭延礼(1998), ≪中國近代飜譯文學概論≫, 湖北教育出版社.
孔慧怡(1999), ≪飜譯・文學・文化≫, 北京大學出版社.
王建開/陸谷孫(2003), ≪五四以來我國英美文學作品譯介史(1919~1949)≫, 上海外語教育出版社.
賈植芳/俞元桂(1993), ≪中國現代文學總書目・飜譯文學卷≫, 福建教育出版社.
謝天振(1999), ≪譯介學≫, 上海外語教育出版社.
王宏志(1999), ≪重釋"信達雅" — 二十世紀中國飜譯研究≫, 東方出版中心.
王宏志(2000), ≪飜譯與創作≫, 北京大學出版社.
陳平原(1997), ≪陳平原小說史論集≫ 中卷, 河北人民出版社.
陳平原(2003), ≪中國小說敍事模式的轉變≫, 北京大學出版社.
王向遠(2001), ≪二十世紀中國的日本飜譯文學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陳學斌/劉彤(2005), <Translation Studies的名與實 — 再議"Translation Studies"一詞的漢譯>, ≪南昌大學學報≫ 36-6.
王建開(2007), <飜譯史研究的史料拓展: 意義與方法>, ≪上海飜譯≫ 2007-2.
王友貴(2003), <意識形態與20世紀中國飜譯文學史(1899~1979)>, ≪中國飜譯≫ 24:5.
Anthony Pym(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St. Jerome.
Zhu Chunshen(朱純深)(2004), Translation studies in China or Chinese-related translation studies: Defining Chinese translation studies, *Babel* 50:4.

< 中文提要 >

二十世紀以來, 中國飜譯文學史研究領域取得了豐碩成果。本文對民國時期至現金爲止中國飜譯文學史的研究狀況梳理, 以期對未來中國飜譯文學史研究提供有價值的參考模式。本文分爲兩個部分, 分別記述了民國至文革期間的飜譯文學史研究成果與改革開放以後的飜譯文學史研究成果。

通過考察二十世紀一百餘年間的飜譯文學史著作的發展曆程, 發現研究者始終把飜譯文學視爲中國現代文學不可或缺的重要部分。飜譯文學在創造和豐富中國現代文學方面的貢獻, 的

www.kci.go.kr

確與創作具有同等重要的意義和價值。 二十世紀飜譯文學史的書寫主要由兩個學術領域推動, 一爲比較文學領域, 另一爲飜譯學領域。前者全面收集譯者、譯本等第一手的相關資料, 偏向記述於譯者或譯者群的飜譯活動, 僅停留在飜譯事件的梳理和描述的層面。後者把飜譯文學放回於整個中國飜譯史, 與宗教飜譯、科技飜譯、社會科學飜譯同等看待, 重視飜譯在廣泛文化層次的運作問題。2000年以來, 飜譯文學史的書寫在繼承前人的觀點的基礎上, 還受國際飜譯學術界文化轉向研究的影響, 而深化了對飜譯文學誕生的曆史文化語境及其飜譯策略和對譯入語文化所起的影響的認識, 擴展了飜譯文學史研究的疆域。

關鍵詞: 二十世紀、中國、飜譯文學、飜譯文學史、飜譯學、中國飜譯學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4.	2013. 2. 16.	2013. 2. 21.	2013. 2. 28.

www.kci.go.kr